‘간호대학생 SNS 홍보단’ 출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생생홍보 발로 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대학생 SNS 홍보단’을 발족시켰다. 단복으로 후드티를 입은 간호대학생들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대학생 SNS 홍보단’ 창단식을 11월 20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6개 권역센터별로 5명씩 총 30명의 간호대학생이 홍보단원으로 선정됐다.

홍보단은 앞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역할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게 된다. 각 지역의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며 SNS 활동에 능숙한 간호대학생들이 앞으로 센터 활동은 물론 간호를 올바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창단식에서는 홍보단원으로 선정된 간호대학생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단복으로 노란색 후드티가 지급됐다. 학생들은 센터 사업 및 홍보단 활동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권역센터별 홍보단장도 뽑았다. 학생들에게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우수한 활동을 펼친 학생을 포상할 예정이다.

간호대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의 존재와 간호정책 활동을 직접 보고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스럽고 설렌다”면서 “앞으로 발로 뛰면서 생생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겠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충북·충남 등 6개 권역센터를 두고 있다.

유휴간호사 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로교육,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김수지 간호사업자문위원 소천

간호발전에 큰 족적 남겨 … 시신기증 실천해 귀감

김수지 간호사업자문위원(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11월 25일 소천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천국환송예배는 11월 28일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시신은 이화여대에 기증됐다.

한국 간호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은 간호교육자이며 이론가로 간호교육-연구-실무를 통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지역정신보건사업 모델 구축, 호스피스 확산 등에 힘썼다.

특히 ‘대인적 돌봄 기법’ 간호이론을 개발해 소외된 만성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데 매진했다. 이론을 적용한 지역사회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으며, 이 공로로 국제간호협의회가 주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산시키는 등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썼다. 죽음준비와 생명사랑운동 보급에 앞장섰다. 아버지학교, 자녀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건강가정의 초석을 세우는데 기여했다. 정신보건간호사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간호인재 양성에 힘썼다.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초대 학장으로 봉사하며 간호사 양성에 헌신했다.

세계 간호사들의 최고의 영예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탁월한 지도력으로 사회에 공헌한 여성지도자에게 주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후 “지난 50여년 보다 좋은 간호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호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되돌아보면 간호사로 살 수 있었던 그 자체로 제 인생은 큰 감동과 보람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화여대에서 이학석사, 미국 보스턴대에서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한국간호과학회장,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한국호스피스협회장, 서울사이버대 총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 1남 2녀가 있다. 큰 딸이 김 수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는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여성건강간호학회 총회 … 미래발전위원회 신설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회장·신혜숙)는 정기총회 및 제46회 추계학술대회를 11월 18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의 미래발전전략과 학습목표 방향 설정 및 검토, 국가시험위원 위촉 등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할 ‘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여성건강간호학 핵심술기 DVD를 제작할 계획이다. ‘여성건강간호학 학문분류체계’를 정리해 공유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여성건강간호학회지를 연 4회 출간하고, 우수 박사과정생 연구비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II’ 주제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와 공동개최했다. ‘출산기여성 건강관리’ ‘여성의 건강불평등’ ‘중년기여성 건강관리’ 등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열린 지역이사 워크숍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가상현실 교육 적용 방안과 사례’ 특강이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joo@

정신간호학회 총회 … 회원 역량강화 주력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김성재)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11월 24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및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교수역량강화 세미나, 교수임상연수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SCIE 등 해외학술지 DB 등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한국정신간호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관련 학·협회와 활발히 교류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이해와 정신간호의 역할’ 주제로 열렸다.

우수논문상은 현미열 제주대 교수와 황선영 서울대 연구원, 우수심사위원상은 김신미 창원대 교수와 장선주 을지대 교수가 받았다. 우수포스터상은 이수정 경남대 교수팀, 배영주 동신대 박사과정생팀이 받았다. 신임교수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혜진 기자 hjjoo@

대한조산협회 ‘조산학 교재’ 출판기념회

대한조산협회는 ‘조산학 교재 출판기념회 및 제15회 조산사 학술세미나’를 11월 24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조산협회는 지난해 새 회관을 마련한 데 이어 2016년을 ‘조산 연구와 발전의 해’로 정하고 조산학 교재 발간이라는 큰 사업을 달성했다”면서 “간호조산학 제3판 이후 적절한 교재가 없어 목말라하던 터에 새 교재가 발간돼 등대와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출판기념회와 학술세미나는 대한조산협회와 조산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조산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조산협회는 ‘조산학-Myles Textbook for Midwives’를 발간했다. 조산학 교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대한조산협회와 부산일신기독병원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교재는 △조산사 △해부학과 생식 △임신 △분만 △산욕기 △신생아 등 6개 섹션, 총 34개 챕터로 구성됐다. 여성의 임신-분만-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여성건강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중심의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김희경 학술위원장(공주대 간호학과 교수)이 교재 발간 경과보고를 했으며,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출판기념회에 앞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준영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장이 ‘보건영역에서의 조산사 역할 제고’ 주제로 강연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게 시 판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간호교육학회(회장·박영임)는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간호실무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 방향’ 주제로 12월 19일 오후 1시 서울대 간호대학 102호에서 개최한다. ‘대학에 기대하는 간호실무 적응 교육’ 등 주제발표. 논문초록 및 사전등록은 12월 4일까지 접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asne.or.kr) 참조. 문의 이메일(kasne1994@naver.com).

경기도간호사회 직원 모집

경기도간호사회(회장·김인자)에서 회원복지담당 직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산작업이 가능한 자 △제출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간호사 면허증 사본 등 △접수마감 : 12월 9일(금) 18:00까지 △이메일(kki9291@hanmail.net) 접수. 문의 031)223-4051.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이가영 충북대병원 간호사, 공원서 심정지 시민 구해

공원을 산책하다 쓰러진 환자를 간호사가 발견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목숨을 구한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대병원 이가영 간호사가 그 주인공.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10분께 집 앞 공원을 산책하던 이가영 간호사는 운동하던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다. 즉시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당시 환자는 안면에 출혈이 있었고, 맥박마저 잡히지 않는 상태였다. 의식 없이 힘들게 호흡을 몰아쉬다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제세동기까지 사용한 환자는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는 회복돼 일반병실로 옮긴 후 퇴원했다.

이가영 간호사는 “발견 당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건강하게 퇴원하게 돼 기뻤다”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산책 나온 주민들이 휴대폰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기에 신속한 응급조치와 이송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 제주지역 학술집담회

한국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회장·이재온)는 학술집담회를 ‘보완대체요법과 간호’ 주제로 11월 11일 제주도간호사회 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제주지역 회원과 간호사들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알리고 보급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강문정 제주지역이사가 중심이 돼 주관했다.

학술집담회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의 이해’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아로마요법, 타이치운동, 경락자극요법, 테이핑요법, 명상요법 등에 대한 강연과 시연 및 실습이 진행됐다.

이재온 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